

##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, 각 분야 전문가 17명 추가 위촉

등록 2022.11.11 09:50:55

유정복 시장 “IFEZ, 대한민국 성장 동력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고견 들려달라”



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모습. (사진=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)

[인천=뉴시스] 김동영 기자 =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등 국내 각 분야 전문가 17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.

위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했다.

모두 47명으로 구성된 IFEZ 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기획정책, 투자유치, 도시개발, 문화관광 등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.

위원회는 ▲IFEZ 비전과 ▲전략 ▲개발 ▲투자유치 ▲경영·정주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을 제공해 IFEZ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앞으로 IFEZ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, 뉴글로벌시티 인천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”고 말했다.

